

# 18세기 프랑스어 사전 연구

- 『아카데미 프랑세즈 사전』과 『백과전서』를 중심으로

하영동\*

- 목 차 -

- I. 서론
- II. 『아카데미 프랑세즈 사전』의 개정판들
- III. 『백과전서』
- IV. 결론

## |국문초록

1694년 『아카데미 프랑세즈 사전』 초판이 출간되자마자, 아카데미 회원들은 60여 년 동안 언어에 관한 당대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라 할 수 있는 자신들이 직접 만든 사전의 부족함을 인식하였다. 집단 지성의 산물인 『아카데미 사전』이 개인이 만든 『리슐레 사전』(1680)이나 『튀르티에르 사전』(1690)과의 경쟁에서도 뒤졌다. 아카데미 회원들은 초판의 수정작업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고, 이때부터 이전 판을 수정하여 신판을 출판하는 것은 아카데미의 주요 업무가 된다. 아카데미 프랑세즈는 18세기 한 세기 동안 제2판부터 제5판까지, 가장 많은 4개의 판을 출판하게 되는데, 이 논문은 각 판에서 이루어진 혁신을 위주로 각 판의 사전학적 특징을 고찰한다.

프랑스 사전 편찬의 역사에서 18세기는 백과사전적 언어사전인 『튀르티에르 사전』

---

\* 전남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

르티에르 사전』 개정판의 출간으로 시작되어 대표적인 언어사전인 『아카데미 프랑세즈 사전』 제5판 출간으로 끝을 맺는다. 하지만 18세기는 언어사전이나 백과사전적 언어사전보다도 새로운 유형의 사전, 즉 백과사전의 출현으로 더 기억되는데, 『백과전서 혹은 과학, 기술, 직업에 관한 체계적 사전』이 바로 그것이다. 프랑스 계몽주의의 기념비적 저작으로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유럽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이 사전은 흩어져 있는 다양한 인간 지식을 모아 하나의 통일된 체계 속에 포괄하여 후대의 세대에 물려주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는 사전의 계획부터 완성까지 25여 년의 기간 동안 반대파의 끊임없는 탄압으로 특징 지워지는 『백과전서』의 출판 과정을 정리하고, 사전학적 특징 및 문화사적 의의에 대해 고찰한다.

주제어 : 아카데미 프랑세즈, 프랑스어 사전, 백과전서, 디드로, 달랑베르

## I. 서론

프랑스 사전 편찬의 역사에서 18세기는 17세기 말에 출판된 사전들의 신판의 출판으로 시작된다. 먼저 작가이자 역사가이며 외교관이었던 바나즈 드 보발(Jacques Basnage de Bauval)에 의해 퓌르티에르의 『보편사전Dictionnaire Universel』 신판이 1701년 헤이그와 로테르담의 아르누(Arnoud)와 레니에 리르(Reinier Leers) 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 이 신

판은 “이단적인 내용”으로 인하여 예수회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트레부(Trévoux)의 예수회 사제들은 이교적인 내용이 제거된 새로운 사전 출판 계획을 선언하게 된다. 멘느 공작(Duc de Maine)과 예수회의 도움으로 출판인 에티엔 가노(Estienne Ganeau)는 언어사전에 관한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독점을 교묘히 피해가면서 새로운 보편사전의 출판 허가를 받아냈다. 그리고 마침내 1704년 『프랑스어-라틴어 보편사전 Dictionnaire universel françois et latin』을 발간하였다. 일반적으로 『트레부 사전Dictionnaire de Trévoux』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이 사전은 뤼르티에르와 바나즈의 작업을 계승하였지만, 종교적 논쟁 요소들이 제거되고 일부 프랑스어 낱말들에 라틴어 등가어가 도입된, 뤼르티에르의 『보편사전』과는 다른 새로운 사전이라 할 수 있다. 뤼르티에르의 사전은 1725년 판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출판되지 않았지만, 『트레부 사전』은 1771년 마지막 판이 되는 제6판까지 계속 출판되었다.<sup>1)</sup> 수시에(Souciet) 신부의 책임 하에 출판된 1721년 제2판부터 이 사전은 많은 어휘, 특히 전문용어들을 등재하고 백과정보를 풍부히 하면서 전문 학술 용어에 관한 18세기 사전들 가운데 가장 완전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sup>2)</sup>

리슐레의 『프랑스어 사전Dictionnaire françois』은 1706년 암스테르담의 엘제비르(Jean Elzevir)출판사에서 신판이 출간되었다. 이 사전은 1732년, 1740년 그리고 1759년에도 개정판이 출판된다.

한편 아카데미 프랑세즈(Académie française)는 초판이 출간되자마자 사전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수정작업에 착수하여 1718년에 제2판을 출간하였다. 현재 제9판을 제작중인 아카데미 프랑세즈는 18세기 한 세기 동

1) 1721년에 제2판, 1732년에 제3판, 1742년에 제4판 그리고 1752년에 제5판이 출판되었다.

2) Jean Pruvost, *Les dictionnaires de langue française*, Puf, 2002, p.33; Georges Matoré, *Histoire des dictionnaire français*, Larousse, 1968, p.94.

안만 제2판에서 제5판까지, 가장 많은 판을 출판하게 된다.

이와 같이 18세기의 사전들은 이전 세기에 출판된 사전들을 수정 보완하는 성격이 강했다. 하지만 18세기가 이전 세기의 사전들만 계승한 것만은 아니다. 18세기 후반 새로운 유형의 사전이 출현하였기 때문이다. 『백과전서 혹은 과학, 기술, 직업에 관한 체계적 사전Encyclopédie, ou Dictionnaire raisonné des sciences, des arts et des métiers』(1751~1772, 이하 『백과전서』)이 바로 그것이다. 이 대사전이 18세기 후반에 나올 수 있었던 시대적 요인으로는 출판의 급성장과 출판업자들의 기업주로의 부상, 생활여건의 개선과 이에 따른 사고계 살롱이나 과학 모임들의 활성화 및 다양한 아카데미의 창설 등을 들 수 있다.<sup>3)</sup> 본고에서는 언어사전의 대표 격인 『아카데미 프랑세즈 사전』의 제2판부터 제5판까지 각 판의 특징을 살펴보고, 새로운 유형의 사전인 『백과전서』의 출판 과정과 사전학적 특징 및 문화사적 의의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 II. 『아카데미 프랑세즈 사전』의 개정판들

### 1. 제2판(1718)

『아카데미 프랑세즈 사전』 초판이 발간되자 이에 대해 비판하는 서적들이 익명으로 출판되었다. 비판내용은 주로 어휘 목록 선정에 관한 것이었다. 사전의 서문에 제시하고 있는 “담화의 고귀함과 우아함”에 어울리지 않는 속된 표현들이 많이 등재되어 있다거나, 반대로 등재되어야 할 단어들 이 누락되었다는 것이었다. 사전을 편찬한 아카데미 회원들도

3) 부길만, 『출판기획물의 세계사』, 커뮤니케이션북, 2014, 64~65쪽.

초판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 결과 이들은 1695년 1월부터 수정 작업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고, 이때부터 수정작업은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주요 업무가 된다.

수정작업은 2개의 부서로 나뉘어 이루어졌다. 레니에 데마레(Régnier-Desmarais), 폰트넬(Fontenelle), 투레이(Tourreil) 등이 참여한 제1부서는 사전학적 문제를 처리하였고, 샤르팡티에(Charpentier), 페로(Perrault), 코르네유(Corneille) 등이 참여한 제2부서는 언어에 관해 의심스러운 것들을 맡았다. 언어와 관련된 의심스러운 점들은 작가들의 작품을 참조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1700년 3월 27일 회의가 이를 잘 보여 준다. 이 회의에서 당시 가장 나은 작가들이라고 간주되는 말레르브, 발자크, 보즐라, 다블랑쿠르 등의 작품을 검토하여 언어에 대한 의혹을 해결하기로 결정하였다.<sup>4)</sup> 리슐레나 뷔르티에르의 사전처럼 아카데미도 작가들의 작품을 언어적 권위에 이용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 두 사전과는 달리 아카데미는 작가들의 권위를 이용하여 언어에 대한 의혹만 해결할 뿐 인용하지는 않았다. 더군다나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의견을 기다릴 필요 없이 프랑스어 최고의 작가들에서 추출한 용례들을 추가할 권한을 종신 서기에게 부여한다”<sup>5)</sup>라는 1713년의 종신 서기의 업무에 관한 새로운 규약에도 불구하고 아카데미는 인용문 없는 사전을 끝까지 고수하였다.

수정작업은 작업 개시 5년 만인 1700년 3월에 거의 마무리됐다. 하지만 참고의 편리성을 위해 초판의 어근에 의한 배열 대신 알파벳순 배열을 채택하기로 하면서 출판이 상당히 연기되게 된다.<sup>6)</sup> 결국 초판이 나

---

4) Eugénia Roucher, “Deuxième édition 1718 *Épître*, Préface, Privilège : Introduction et Notes”, dans Bernard Quemada, 1997, p.113.

5) Ibid., p.119.

6) Ibid., p.118.

온 지 24년 만인 1718년 7월 7일 제2판이 출판되었고, 섭정에게 헌정되었다.

초판과 같은 원칙하에 출판되었지만 저자들은 서문에서 “옛 판의 신판이 아니라 새로운 사전”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제2판이 초판과 많이 다르다고 강조하였다.

이 두 사전을 비교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 판이 초판과 다르다는 것을 쉽게 알 것이다. 우리는 모든 틀을 바꾸고 많은 낱말들을 추가하고 거의 모든 정의를 수정하고 명확히 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대중에게 제공하는 것은 옛 판의 새로운 판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사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sup>7)</sup>(인용자 역)

서문에 밝힌 대로 어휘 목록이 풍부해졌다. *falbala*(주름 장식), *fichu*(부인용 세모꼴 숄), *ratafia*(라타피아), *sabler*(단숨에 들이켜다) 등과 같이 사회 변화를 반영하는 단어들도 추가되었다. 전문 용어들도 많이 등재되었다. 루웨의 조사에 따르면, 알파벳 I로 시작되는 항목에서만 *incessible*(양도할 수 없는), *imposte*(통풍창), *imputation*(산입) 등과 같은 법률, 건축, 재정 등과 관련된 82개의 전문용어가 추가되었다.<sup>8)</sup> 무엇보다도 초판에서는 언어사전과 전문용어 사전을 별도의 사전으로 분리 편찬하면서 『과학 기술 사전 *Dictionnaire des Arts et des Sciences*』에 등재되었던 용어들이 신판에 등재된 것이 풍요의 원천이 되었다. 또한 서

---

7) “[...] ceux qui voudront les comparer, connoistront aisément combien celle-cy est différente de la première. On en a changé toute la forme, on y a adjousté beaucoup de mots, on a retouché & éclairci presque toutes les Définitions, & l’on peut dire que ce que l’on donne aujourd’hui au Public, est plustost un Dictionnaire nouveau qu’une nouvelle Edition de l’ancien.”(『아카데미 프랑세즈 사전』 제2판 서문; Eugénia Roucher, op. cit., p.128.)

8) Eugénia Roucher, op. cit., p.119.

문에 밝힌 것처럼 일부 단어들의 정의가 더 명확해졌다. 하지만 어휘 목록의 증가와 뜻풀이의 수정만으로는 저자들이 이 판을 “새로운 사전”으로 간주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들이 이렇게 주장한 데에는 무엇보다도 표제어 배열 방식의 변화에 있다고 본다. 초판에서는 어근에 의한 배열 방식이 채택되었는데, 이 방식은 찾고자 하는 단어를 쉽게 찾을 수 없어 다른 사전들과의 경쟁에서 뒤지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결국 아카데미는 초판에서 가장 혁신적인 것으로 평가받았던 어근에 의한 배열을 포기하고 알파벳순 배열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배열 방식의 차이는 사전 내용 전체를 새롭게 배치하게 함으로써 독자들의 눈에 새로운 사전으로 비춰지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 2. 제3판(1740)

“대중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큰 봉사는 프랑스어 사전을 제작하고 완전하게 하는 것”<sup>9)</sup>이라고 아카데미의 역할을 규정한 아카데미 프랑세즈가 새로운 판을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 제3판의 편찬 작업은 돌리베(D'Olivet)에 의해 주도되었다. 1628년 프랑슈콩테의 살랭(Salins)에서 태어난 그는 1723년에 아카데미 회원으로 선출되었다. 아카데미 회원인 비뇽(Bignon) 신부에게 보낸 1727년 7월 24일자 편지에서 그는, “현재 상태의 아카데미 사전은 아무런 가치가 없으며 지금까지의 작업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백년을 작업한다 해도 결코 더 나은 사전을 만들 수 없을 것이다”<sup>10)</sup>라고 하면서, 아카데미 사전의 작업 방식을 비판하

9) 『아카데미 프랑세즈 사전』 제3판 서문; Susan Baddeley et Liselotte Biedermann-Pasques, “Troisième édition 1740 Préface : Introduction et Notes”, dans Bernard Quemada, 1997, p.165.

10) Susan Baddeley et Liselotte Biedermann-Pasques, op. cit., p.148.

였다. 작가들의 작품에서 추출한 인용문이 없는 사전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그는 에티엔의 사전과 이탈리아의 크루스카(Crusca) 아카데미의 사전 및 에스파냐의 마드리드 아카데미의 사전 등을 사전의 완벽한 모델로 소개하였다.<sup>11)</sup>

하지만 돌리베의 개인적 소신에도 불구하고 제3판에서도 인용문 용례는 채택되지 않았다. 이것은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작업 방식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아카데미 프랑세즈는 1727년 9월 1일, 신판의 사전 작업 시 그 이전 판에 수정과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회원 2/3의 표를 얻어야 하고, 새로운 것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과반수면 된다고 결정하였다.<sup>12)</sup> 새로운 항목의 추가보다도 기존 사전의 내용 수정을 더 까다롭게 한 이러한 결정은 아카데미 사전의 보수성을 잘 설명해 준다. 언어에 관한 한 최고의 권위 기관인 아카데미 프랑세즈는 『퓌르티에르 사전』이나 『트레부 사전』 등이 작가들의 인용문에 근거하여 용법을 기술하고 예증하려 한 데 반해 자신들의 권위에 근거하여 언어의 용법을 고정하고자 하는 원칙을 포기하지 않았다.

일부 항목의 수정과 새로운 낱말의 추가에도 제3판은 제2판과 기본적인 선택에 있어서는 같았다. 다만 한 분야에서만 이전 판과 확연히 구별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철자법이다. 돌리베는 그의 전임자, 레니에-테마레의 작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초판과 제2판 사전의 철자를 옛 철자법(orthographe ancienne)이라고 평가하였다.<sup>13)</sup> 단어의 어원을 보여주기 위해 옛 철자법을 고수했던 앞의 두 판과 달리 제3판은 새로운 철자법을 채택하였다. 제3판에 도입된 철자법은 다음과 같다.

---

11) Ibid., p.148.

12) Ibid., p.150.

13) Ibid., p.163.

- 무음 s 대신에 폐음 [e]를 표시하기 위한 악상 테귀의 도입 : estoit  
→ étoit
- 개음 [ɛ]를 표시하기 위한 악상 그라브의 도입 : après → après;  
sucez → succès; colere → colère; these → thèse
- 철자 제거의 결과 장모음을 표시하기 위한 악상 시르콩플렉스의 도입<sup>14)</sup> : estre → être; honneste → honnête; soustenu → soutenu
- 모음 중복이 악상 시르콩플렉스에 의해 표시됨으로써 제거됨 :  
baailler → bâiller; meur → mûr; seur → sûr
- 묵음 자음 제거 : obmettre → omettre; adjouster → ajouter
- 음색의 변화가 없는 y를 i로 대체 : ayeul → aieul
- 일부 그리스문자의 제거 : autheur → auteur; thresor → trésor

철자의 변화로 일부 표제어의 위치에 변화가 불가피했다. 예를 들어, 1718년 판에서 neantmoins은 neant 다음에 위치하였으나, 1740년 판에서는 묵음 자음의 탈락으로 néanmoins으로 표기되어 néant 앞에 위치하게 되었다. 올리베의 노력에 의해 새롭게 채택된 악상 체계와 불필요한 묵음의 제거는 철자에 관한 기존의 사전학적 전통과 결별하면서 제3판의 가장 혁신적인 특징으로 간주된다. 또한 새로운 철자법의 도입으로 아카데미는 철자법에서만은 어느 정도 보수적인 태도에서 벗어난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 3. 제4판(1762)

구체제 하에서 출판된 마지막 사전이 된 제4판은 1747년에 아카데미

---

14) 악상 시르콩플렉스는 goutte/goûte, tette/tête 등과 같이 동형어 구별에 체계적으로 이용되었다.

프랑세즈 회원이 된 뒤클로(Duclos)에 의해 주도되었다. 사전의 기본적인 편집 방향은 이전 판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용례는 여전히 아카데미 회원들에 의해 만들어졌고, 표제어는 공통 언어에 한정하여 선정한다는 원칙이 고수되었다.<sup>15)</sup> 하지만 이러한 선정 원칙에도 불구하고 전문 용어들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뒤클로는 서문에서 전문 용어들을 등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전에는 소수만 알던 많은 용어들이 공통어가 되었다. 오늘날 거의 일반 용법이 된 낱말들을 우리 사전에 등재하지 않는 것을 이성적이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과학과 기술의 기본 용어들 그리고 심지어는 직업 용어들까지도 이 신판에 받아들여야 한다고 확신하게 되었다.<sup>16)</sup>(인용자 역)

뒤클로는 전문 영역이나 전문가들 사이에 한정되어 쓰이던 낱말이 일반적인 용법이 되면 등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전문용어가 전문성을 상실하고 일반 용법의 낱말이 되었는지는 문인과 사교계의 인사들이 보는 전문 서적이 아닌 일반 서적들에서 발견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것 같다.<sup>17)</sup> 하지만 제4판에는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많은 전문용어들도 대규모로 등재되었다고 타스케는 지적하

15) 『아카데미 프랑세즈 사전』, 제4판 서문; Michel Dessaint, “Quatrième édition 1762 Épitre, Préface, Privilège : Introduction et Notes”, dans Bernard Quennada, 1997, pp.195~196.

16) “Plusieurs termes [...] qui n'étoient autrefois connus que d'un petit nombre de personnes, ont passé dans la Langue commune. Auroit-il été raisonnable de refuser place dans notre Dictionnaire à des mots qui sont aujourd'hui d'un usage presque général? Nous avons donc cru devoir admettre dans cette nouvelle Edition, les termes élémentaires des sciences, des arts, et même ceux des métiers, [...].”(『아카데미 프랑세즈 사전』 제4판 서문; Michel Dessaint, op. cit., p.196.)

17) Michel Dessaint, op. cit., p.196.

었다.<sup>18)</sup> 어찌됐든 과학과 기술, 공예 관련 용어들을 사전에 대규모로 허용함으로써 제4판은 이전 판들에 비해 어휘목록 증가가 두드러졌다. 고영에 의하면 제4판과 제5판에 총 7,104개의 낱말이 새로 등재되었는데, 그중 제4판에 5,217개 그리고 제5판에 1,887개가 실렸다.<sup>19)</sup> 제4판이 뒤에 출간되는 제5판보다 약 3배 정도 더 많은 신조어를 등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제4판에서 전문어의 증가가 두드러진 것은 아마도 1751년부터 출간되기 시작한 디드로와 달랑베르<sup>20)</sup>의 『백과전서』가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사전 편찬 작업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제4판은 이전 판에 이어 철자법 부문에서 몇 가지 중요한 혁신이 이루어졌다. 먼저 모음 I와 자음 J, 모음 U와 자음 V가 분리되었다. 이로써 프랑스어 철자는 23개에서 25개로 늘어났다.<sup>21)</sup> 복수를 표시하는 어미 ez가 és로 대체되었으며(amitez→amitiés), 일부 단어에서 제3판에서 철자 제거의 결과 장모음을 표시하기 위해 도입하였던 악상 시르콩플렉스가 탈락되었다(souîtenu → soutenu; ajoûter → ajouter). 또한 Moyen처럼 이중 I로 사용되지 않거나 Physique, Synode 등과 같이 어원의 혼적을 보존하는 데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 철자 y은 i로 대체되었다. 그 결과 Foy, Loy, Roy 등이 Foi, Loi, Roi 등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아카데미는 이런 철자의 수정에 일관성이 결여되었음을 스스로 서문에 밝히고 있다. 아카데미는 그 이유를 “가장 일반적인 용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sup>22)</sup> 원칙적으로는 수정을 해야 하지만 관습에 의

18) Liliane Tasker, “Cinquième édition 1798 Discours préliminaire et Pièces annexes : Introduction et Notes”, dans Bernard Quemada, 1997, p.240.

19) Ferdinand Gohin, *Les transformations de la langue française pendant la deuxième moitié du XVIII<sup>e</sup> siècle* (1740~1789), 1903, Paris, Berlin: Liliane Tasker, op. cit., p.239 참조.

20) 달랑베르는 1754년 아카데미회원으로 선출되나 제4판 편찬에는 참여하지 못하였다. 그는 뒤클로의 뒤를 이어 1772년 종신서기로 선출되면서 제5판 작업부터 아카데미의 사전 편찬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21) 이후 외래어 특히 독일어를 표기하여 위하여 W가 X,Y,Z 앞에 23번째 문자로 사용됨으로써 26개 문자가 된다.(Michel Dessaint, op. cit., p.206.)

해 굳어진 것은 수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 4. 제5판(1798)

제5판은 달랑베르와 마르몽텔(Marmontel)에 의해 준비되었는데 다른 판들에 비해 많은 곡절을 겪게 된다. 먼저 1778년 2월 10일 페르네(Ferney)에서 파리로 돌아온 볼테르가 5월 7일 아카데미 프랑세즈에 새로운 사전 편찬 계획을 제안하였다. 이 계획안의 핵심은 사전에 어원 정보를 싣고 용례는 인용문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었다. “인용문이 없는 사전은 해골과 같다”라고 말한 볼테르가 작성 용례가 아닌 인용문을 용례로 삼자고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였다. 그럼에도 이 새로운 사전 계획은 아카데미 프랑세즈가 지금까지 고수해온 사전 편집 원칙과는 크게 달랐기 때문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었다. 하지만 볼테르가 계획을 제안한 지 23일 만에 세상을 뜨면서 그의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다. 볼테르의 새로운 사전 계획안이 기존의 아카데미 사전 편찬을 위협하는 요소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것은 사전의 편집원칙과 관련된 문제였다. 사전 편찬 자체를 위협하는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프랑스 대혁명이다.

대혁명이 있고 4년이 되는 1793년 8월 8일 아카데미 프랑세즈는 국민 의회(Convention nationale)에 의해 다른 아카데미들과 더불어 폐지되었다. 사전 출판을 주목적으로 하는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폐지는 곧 사전의 종말을 의미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아카데미 프랑세즈가 편찬하는 사전의 중요성을 인식한 국민 의회에 의해 사전 출판이 허락되었고, 1798년 제5판이 출간되었다.

---

22) Ibid., p.202.

사전 출판 작업은 1774년에 아카데미 회원으로 선출되었던 쉬아르(Suard)에 의해 주도되었지만, 「머리말」(discours préliminaire)은 아카데미 회원이 아닌 가라(Joseph Dominique Garat)에 의해 작성되었다. 콩디악(Condillac)의 제자로 혁명 의회 시절 법무부장관과 내부부장관 등을 역임한 가라는 1795년 국민 의회에 의해 창설된 학술원(Institut)의 회원이 되었다. 이 학술원 내에는 물리와 수학 아카데미(sciences physiques et mathématiques), 문학과 조형예술 아카데미(littérature et beaux-arts), 도덕과 정치 아카데미(sciences morales et politiques) 등 3개의 아카데미가 있었는데, 가라는 도덕과 정치 아카데미의 회원 자격으로 학술원 회원이 되었다. 이전의 아카데미 프랑세즈 기능은 1803년에 회복되기 때문에 가라는 아카데미와 프랑세즈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인물이었다.<sup>23)</sup> 아카데미 프랑세즈가 폐지된 1793년부터 그 본래의 기능을 회복한 1803년까지의 시간적 공백 기간 때문에 일부 아카데미 회원들과 사전학자들은 제5판을 아카데미 프랑세즈 사전으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19세기의 대표적인 사전편찬자 라루스는 1865년 그의 사전 『19세기 보편대사전Grand Dictionnaire universel du XIX<sup>e</sup> siècle』의 서문에서 1762년 아카데미 사전의 직속 후계는 1798년 사전이 아니라 1835년 사전 뿐이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sup>24)</sup> 하지만 비록 제5판의 「머리말」이 아카데미 프랑세즈와 관련이 없는 정치인에 의해 작성되고 아카데미 프랑세즈가 폐지된 기간에 출판되었다 해도 이 판도 아카데미 회원들의 사전이라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구체제의 아카데미 회원들에 의해 준비되고 수정되었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제5판은 1878년 제7판이 출판되면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사시(M. de Sacy)가 1877년 5월 22일 회의에

---

23) Liliane Tasker, op. cit. p.221.

24) Ibid., p.301 참조.

서 제7판의 서두에 지금까지 출판된 『아카데미 프랑세즈 사전』의 서문들을 실을 것을 제안하여 이 안이 채택되었는데,<sup>25)</sup> 아카데미는 혁명으로 탄생한 제5판 서문도 다른 서문들과 함께 실음으로써 공식적으로 이 판을 아카데미 프랑세즈 사전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공표하였다.

제5판이 이전 판과 두드러지게 다른 점이 있다면, 1762년판에 도입된 전문 학술어 중에서 일상어가 되지 않았는데도 등재된 화학, 의학, 자연사 등의 많은 전문 용어들을 삭제하였다는 점이다. 의학용어의 예를 보면, *apepsie*(소화불량), *duplication*(중복막), *perspiration*(발한), *turgescence*(팽만상태) 등이 신판에서 삭제되었다.<sup>26)</sup> 신조어와 전문 용어의 등재에 대해 더 신중해지고 본래의 원칙에 충실하자고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혁명 정부 시절에 출판된 제5판의 가장 큰 특징은 대혁명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이 점에서 다른 판들과 가장 크게 차이가 난다. 제2권 765쪽에서 776쪽에 걸쳐 「혁명 이후 사용된 새로운 낱말들 *Les mots nouveaux en usage depuis la Révolution*」이라는 제목의 12쪽의 부록이 추가되었다. 이 부록에는 약 330개의 낱말이 등재되어 있는데 사전의 본문에 이미 등재되어 있지만 혁명 이후 새로운 “혁명적 의미”(sens révolutionnaire)가 추가되거나 또는 의미가 바뀐 낱말들에는 별표(\*)를 붙여 완전히 새로운 낱말들과 구별하였다. 부록에는 *Ecoles Normales*(에콜 노르말), *Primaires*(초등의), *Ecole Polytechnique*(에콜 폴리테크니크), *gendarmerie nationale*(헌병대) 등과 같이 혁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기관이나 제도와 관련된 낱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낱말들이 사전에 등재되는 것은 당연해

25) Jean Pruvost, “Septième édition 1878 Préface : Introduction et Notes”, dans Bernard Quemada, 1997, p.382.

26) Liliane Tasker, op. cit., p.241 참조.

보인다. 그레구아르(Grégoire) 신부는 1794년 그의 보고서에서 “이미 혁명은 많은 낱말들을 모든 도(département)에 전파시켰고 이곳에서 이 낱말들은 거의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다”<sup>27)</sup>라고 말한 바 있다. 모두에게 알려진 낱말들을 등재하는 것은 아카데미 사전 편집의 원칙과도 부합한다. 하지만 enragé(격노한), marais(늪), motionner(발의하다), révolutionner(혁명을 일으키다), sans-culotte(과격 공화파), sans-culottides(공화 축제일) 등과 같은 일종의 혁명 은어들도 들어 있었다. 이에 대해 대혁명 4년 전에 아카데미 프랑세즈 회원이 된 모렐레(Morellet) 신부는 “일시적으로만 존재한 일종의 혁명의 은어인 야만적이고 저속한 용어 또는 혁명 정부의 광기와 범죄를 표현하는 용어들로 프랑스어 사전을 더럽힐 수 없다”<sup>28)</sup>라고 하며 분노하였다.

그럼에도 『아카데미 프랑세즈 사전』의 권위는 혁명 정부에 의해서도 인정되었고, “아카데미의 사전이 프랑스와 유럽의 국가들에서 프랑스어의 용법과 규칙을 신뢰하고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사전”으로 간주되었다.<sup>29)</sup>

### III. 『백과전서』

#### 1. 발간 과정

##### 1) 발간 계기

제작기간이 20년이 넘고 7만 개가 넘는 항목과 3천여 개의 도판으로

---

27) Ibid., p.247에서 재인용.

28) Ibid., p.251에서 재인용.

29) Ibid., p.244 ; Joseph Dominique Garat, 『아카데미 프랑세즈 사전』 제5판 「머리말Discours préliminaire」

구성된 대 『백과전서』의 시작은 미약하였다. 이 대작은 1728년 영국에서 출간된 이프레이م 체임버스(Ephraim Chambers)의 『백과사전 혹은 기술과 과학의 보편 사전 Cyclopaedia, or an universal dictionary of arts and sciences』(2절판, 2권)이 큰 성공을 거두자 이를 프랑스로 번역 출판하려는 출판인 앙드레 르 브르통(André Le Breton)의 계획에서 시작되었다.

1745년 1월에 파리에 살고 있던 독일인 셀리우스(Gottfried Sellius)가 이프레이م 챔버스의 『사이클로피디아Cyclopaedia』를 프랑스로 번역해 볼 것을 르 브르통에게 제안하였다. 그러면서 공동번역자로 영국인 존 밀(John Mills)을 추천하였다. 한 해 전 동업자인 브래송((Braisson), 다비드(David), 뒤랑(Durand)과 함께 로버트 제임스(Robert James)의 『의학 사전Medicinal Dictionary』(1743-1745, 3 권)을 2절판 6권 예정으로 번역 출판 사업에 착수했던 르 브르통에게 체임버스의 사전 두 권을 번역하는 것은 그렇게 큰일로 보이지 않았다. 같은 해 2월에 그는 셀리우스, 밀과 계약을 체결하고, 『사이클로피디아』를 수정 증보하여 텍스트 4권과 도판 1권으로 출판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1745년 3월 26일 르 브르통은 『과학과 기술의 보편 사전Dictionnaire universel des Arts et des Sciences』 인쇄와 출판에 대한 허가(privilège)를 받았다. 하지만 같은 해 8월, 불화로 그들의 결합이 깨졌고 계약과 출판에 관한 허가도 취소되었다. 이에 르 브르통은 제임스 사건의 출판 동업자들과 조합을 결성하여 사업을 새로 시작하게 된다. 르 브르통은 출판에 드는 경비의 절반을 부담하고 이익도 절반을 갖기로 하였고, 1746년 1월에 출판 허가를 다시 받았다. 이 허가서에는 체임버스와 해리스의 영어 사전을 번역하고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sup>30)</sup> 그리고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

30) Jacques Proust, *L'Encyclopédie*, Armand Colin, 1965, p.48.

었다.

## 2) 사업의 시작과 사전 구매 신청

편집 책임은 과학 아카데미 회원이자 콜레즈 드 프랑스 교수인 말브 신부(Gua de Malves)가 맡았다. 디드로와 달랑베르가 정확히 언제부터 이 사업에 참여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달랑베르가 1745년 12월, 디드로는 1746년 2월 정도부터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다.<sup>31)</sup> 그들은 초기에는 주요 역할을 맡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말브 신부가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여 만에 편집장을 그만 두게 되게 되면서 이 자리를 달랑베르와 디드로가 맡게 되었다. 이때가 1747년 10월이다. 그로부터 6개월 뒤인 1748년 4월에 새로운 출판 허가를 받았다. 이 허가서에는 체임버스, 해리스뿐만 아니라 디체(Dyche)와 다른 사람들의 사전까지 번역하고 증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sup>32)</sup> 초기 계획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책임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히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디드로와 달랑베르가 주도자가 아니었을까 추정될 뿐이다.

1748년부터 1750년까지 디드로와 달랑베르는 번역된 원고를 정리하면서 새로운 정보들과 참고서, 그림, 판화 등을 모으는 데 전념했다.<sup>33)</sup> 작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자 1750년 11월부터 디드로가 작성한 간행의 목적과 계획을 소개하는 『취지서Prospectus』가 배포되었다. 이 취지서에서 편집자들은 8권의 텍스트와 2권의 도판을 총 280 리브르(livres)에 1754년 말까지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sup>34)</sup> 하지만 약속과 달리 디드

---

31) Idem.

32) Ibid, p.49.

33) 디드로는 1749년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유물론의 시각으로 세계를 설명하려는 『맹인에 관한 서한』 출간으로 뱅센 감옥에 100일 정도 수감되기도 하였다.

34) Robert Damton, *L'aventure de l'Encyclopédie 1775-1800*, Points, 2013, p.35.

로는 작품을 20년 뒤에 완성하게 되고, 예고했던 것보다 세 배가 넘는 28권을 출판하게 된다. 만약 대중들이 처음부터 작품이 17권의 텍스트와 11권의 도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마지막 권이 1772년에 출판된다고 알았다더라면 아마도 사전 편찬의 시도 자체가 불가능 했을지도 모른다.

『취지서』가 배포되자 사전 구매 신청자가 몰렸다. 예약자들은 주로 학자, 의사, 변호사, 고등법원 멤버, 성직자 등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교양인들이었다.<sup>35)</sup> 『취지서』가 발행된 지 반 년이 지난 1751년 6월에 드디어 달랑베르가 작성한 「머리말Discours préliminaire」이 포함된 『백과전서』 제1권이 출판되었다. 제1권이 발행되자 4월 말까지 천 명이던 구매 신청자가 천 사백 명으로 늘어났고, 같은 해 5월 1일자로 마감하려던 사전 예약도 9월까지 연장되었다.<sup>36)</sup> 제1권이 출판된 지 6개월 뒤인 1752년 1월에 제2권도 발행되었다.

### 3) 프라드 신부 사건

두 권의 책이 발행되고 예기치 않았던 프라드 신부(abbé de Prades)의 사건이 터졌다. 『백과전서』의 공동 집필자인 프라드 신부는 1751년 11월 8일에 소르본 대학에서 신학 박사 논문을 발표하였다. 발표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일부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백과전서의 집필자가 신학 논문에 쓴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 했고, 프라드 신부가 감각론(sensualisme)과 자연종교(religion naturelle)를 지지하면서 백과전서의 이론을 옹호하였다는 소문을 냈다. 이에 소르본은 동요하였고 논문이 상세히 다시 검토되었다. 그 결과 프라드의 논문은 이단으로 판정되었고 불에 태울 것을 선고받았다. 파리의 대주교 보몽(Christophe de

---

35) Jacques Proust, op. cit., p.102.

36) Ibid., p.52.

Beaumont)의 1752년 1월 29일자 교서가 파리에 배포되었는데, 이봉 신부(Yvon)와 디드로가 프라드 신부로 하여금 그의 논문에 반기독교적 주장을 가득 채우도록 도왔다는 점이 암시되었다.<sup>37)</sup> 이 사건으로 인해 프라드 신부는 네덜란드로 몸을 피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얼마 후 또 다른 백과전서 협력자인 이봉 신부를 따라 베를린으로 도피하게 된다.<sup>38)</sup>

예수회는 『백과전서』를 공격했다. 조프루아(Geoffroy)는 『한 성프란체스코회 수도사의 성찰Réflexions d'un franciscain, avec une lettre préliminaire adressée à M. (Diderot), auteurs en partie du Dictionnaire』이라는 제목의 팸플릿에서 프라드 신부가 이봉 신부, 말레(Mallet) 신부와 매일 접촉하였다는 것을 폭로하고, 프라드의 논문은 달랑베르의 사상을 전개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드러냈다. 마침내 미르푸아(Mirepoix)의 전 주교인 부아이에(Boyer)는 왕에게 하소연하였고, 국정자문회의(Conseil d'Etat)는 1752년 2월 7일 이미 배포된 『백과전서』 1, 2권의 발행을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된다.<sup>39)</sup> “왕권을 파괴하고 모호한 말로 풍속을 오염시키고 무신앙과 불신앙을 조장하는”<sup>40)</sup>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이 이러한 판결이 내려진 주된 이유였다. 이 판결로 이미 간행된 사전을 리프린트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은 부수를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이 사전 배포 금지에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한다. 출판된 책들은 이미 사전 구매자들에게 배포가 끝난 상태였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러한 발행과 배포 금지 결정은 『백과전서』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예약신청자가 더 늘어나는 뜻밖의 결과를 초래

37) Ibid., p.53.

38) Alain Pons, *Encyclopédie I ou dictionnaire raisonné des sciences, des arts et des métiers(articles choisis)*, GF Flammarion, 1986a, p.8.

39) 1752년 2월 7일자 국정자문회의의 판결문 Arrest du Conseil d'Etat du Roy du 7 Février 1752: 출처: gallica.bnf.fr

40) 1752년 2월 7일자 국정자문회의의 판결문

하였다. 게다가, 정부도 출판 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출판 작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sup>41)</sup> 여기에는 1750년부터 도서행정 총감(Directeur de la librairie)으로 있는 말제르브(Malesherbes)의 도움이 컸다. 백과전서는 1759년의 위기 때도 말제르브의 도움을 받게 된다.

#### 4) 사전 사업의 위기

프라드 신부의 사건으로 백과전서 팀은 몇 사람을 잃게 되었지만 다른 협력자들의 도움 덕분에 출판은 계속될 수 있었다. 책은 1년에 1권씩 출판되었다. 1753년과 1754년에 제3권과 제4권이 출판되었다.<sup>42)</sup> 제5권, 제6권은 각각 1755년과 1756년에 출간되었다. 제7권은 1757년 11월에 발간되었다. 그런데 7권에 기술된 달랑베르가 작성한 「제네바Genève」 항목이 제네바에서 문제가 됐다. 이 항목의 내용 중 “제네바의 많은 성직자들은 소치니주의(socinianisme) 이외에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구절이 특히 논란거리가 되었다.<sup>43)</sup> 소치니주의는 삼위일체,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탈리아의 신학자 소치니의 이단적 학설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루소와 디드로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볼테르도 작업 포기를 선언했다. 제네바인들의 항의와 공격에 지친 달랑베르도 결국 백과전서를 포기하게 된다. 하지만 수학 관련 항목들의 집필은 계속하기로 하였다. 1758년에는 출판이 없었다.

1759년에는 사전 편찬 사업에 두 번째 위기가 닥쳤다. 이 위기의 근원은 1757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757년 4월 16일 국가는 교회와 국가

---

41) 피노는 이러한 결정이 예수회와 파리 대주교를 진정시키고, 고등법원(Parlement)에서 『백과전서』 출판에 관한 더 무거운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본다.(Madeleine Pinault, *L'Encyclopédie*, PUF, 1993, p.21.)

42) 제4권이 출판된 1754년에 달랑베르는 아카데미 프랑세즈 회원으로 선출되었다.

43) “[...] plusieurs pasteurs de Genève n'ont d'autres religions qu'un socinianisme parfait, [...].”(Madeleine Pinault, op. cit., p.27.)

에 반하는 글을 쓰거나 출판하는 자는 그 누구를 불문하고 사형에 처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었다.<sup>44)</sup> 1758년 7월 엘베시우스(Helvétius)가 『정신론De l'Esprit』를 출간하였을 때, 반 백과전서파에서 『백과전서』 제4권에서 제7권에 들어있는 이교를 비난하는 선전으로 포문을 열었다. 비록 엘베시우스가 백과전서에 협력하지 않았어도 분노는 디드로의 작품으로 향했다. 1759년 1월 23일 파리 고등법원 재판소의 검사장 플레리(Joly de Fleury)가 『백과전서』를 포함한 국가체제를 전복시키는 여덟 개의 작품에 대해 논고하였다. 엘베시우스의 작품에는 『백과전서』가 숨어있고, 이 사전 뒤에는 종교를 무너뜨리고 국가의 권력을 약화시키려는 음모가 숨어있다고 경고하였다.<sup>45)</sup> 이주일 후인 2월 6일 파리 고등법원은 이 저서들을 파기하여 불에 태울 것을 결정한다. 그리고 이미 출간된 7권의 『백과전서』에 대해서는 9명(3명의 신학자, 3명의 전임 변호사, 3명의 학자)의 위원으로 구성된 검열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왕의 검사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같은 해 3월 8일 국정자문회의는 1746년 1월 21일 승인한 출판 허가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미 출간된 7권의 배포와 재인쇄도 금지되었다.<sup>46)</sup>

출판업자들은 이러한 조치로 피해를 입게 될 사전 구매자들에게는 환불을 해야 했다. 1759년 6월 21일 국정자문회의는 공동 출판업자들에게 사전 구매자들 각자에게 72 리브르씩 환불해줄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이 금액을 요구하러 오는 사전 구매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이것은 많은 대중들이 여전히 『백과전서』의 출간이 계속되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sup>47)</sup> 경제적 손실을 우려한 출판인들은 네덜란드나 스위스에서

---

44) Robert Darnton, op. cit., p.34.

45) Ibid., p.34.

46) Jacques Proust, op. cit., p.64.

47) Madeleine Pinault, op. cit., p.30.

작업을 계속할 것을 고집하였다. 경제적 관점에서 『백과전서』를 외국으로 나가 출간하는 것은 국익에 반한다. 결국 말제르브는 정부의 묵인 하에 프랑스에서 작업하는 것을 승인하였다.<sup>48)</sup> 구체제에서 모든 출판물은 특허(privilège)를 얻어 출판되어야 했지만, 출판물이 증가함에 따라 체제에 완전히 일치한다고도 볼 수 없고, 전적으로 반대된다고도 볼 수 없는 저작에 대해서는 ‘암묵적인 승인’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출판을 묵인하기도 하였다. 말제르브는 『백과사전』이 암묵적 승인의 형태로 출판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sup>49)</sup> 디드로는 1755년에 간행된 제5권의 「백과사전 Encyclopédie」 항목에서 암묵적 승인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저자들은 필요한 자유를 한껏 누리게 되고 이로써 훌륭한 사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사전에 중요한 주제를 얼마나 많이 다루게 될까! 독자 대중이 필요로 할 멋진 항목이 가득하리라! [...] 역사에 관련된 것은 편견 없이 제시될 것이다. 선은 높이 칭송되고, 악은 가차 없이 비난받을 것이다. 진리를 확신하고, 의혹을 제기하고, 편견은 무너지고, 정치적 참조는 신중을 기할 것이다.<sup>50)</sup>(이충훈 역)

특허를 통해 승인을 받는 쪽은 “금서가 될 위험을 무릅쓰느니 자유를 희생하는 편이 낫다”라고 주장하였지만, 디드로는 “금서가 될 위험을

48) Jacques Proust, op. cit., p.66.

49) 드니 디드로, 『백과사전』, 이충훈 역, 도서출판b, 2014, p.161, 각주 100.

50) “[...] alors que les auteurs jouïroient de toute la liberté nécessaire pour en faire un excellent ouvrage. Combien on y traiteroit de sujets importants ! les beaux articles que le droit public fourmïroit ! [...] L'historique seroit exposé sans partialité ; le bien lôté hautement ; le mal blâmé sans réserve ; les vérités assurées ; les doutes proposés ; les préjugés détruits, & l'usage des renvois politiques fort restreint.”(『백과전서』 제5권 「백과사전Encyclopédie」 항목, p.648.)

무릅쓰고” 자유를 선택했다.

#### 5) 도판 출간과 사전의 완성

출판업자들은 환불을 회피하기 위하여 도판 출간을 시작하였다. 사전 구매자들은 환불 대신 도판을 받기로 하였다.<sup>51)</sup> 르 브르통은 1759년 9월 8일 『설명이 곁들여진 과학, 자유학예, 기술공예에 관한 도판집Recueil de planches sur les Sciences, les Arts libéraux et les Arts mécaniques avec leur explication』에 대한 새로운 특허를 취득하였다. 『백과전서』의 특허는 1759년 3월 8일로 그 유효기간이 끝났지만, 도판의 특허를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백과전서』는 구원되었다. 이후 정부는 텍스트를 포함한 이 작품이 완성될 때까지 모르는 척하게 된다.<sup>52)</sup> 한편 새로운 허가를 취득하기 5일 전인 1759년 9월 3일 교황 클레멘스 13세는 『백과전서』를 소지하고 있는 모든 가톨릭 신자는 파문을 당하지 않으려면 그것들을 불태우라는 교서를 내렸다.<sup>53)</sup> 교황청에 의해 『백과전서』가 금서로 지정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판에 대한 새로운 허가를 취득하여 출판에 관한 합법적인 권리를 되찾았기 때문에 편집자들은 나머지 10권의 텍스트를 위한 작업을 재개할 수 있었다. 이들은 스캔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10권을 한꺼번에 출간하기로 결정하였다.

1762년 1월 백과전서의 도판 제1권이 발행되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르 브르통은 디드로, 조쿠르, 생-람베르, 튀르고, 올바크(Holbach)등이 작성한 텍스트에서 위험해 보이는 항목들에 대해 검열을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디드로는 1764년 11월 최종 인쇄된 텍스트가 교정쇄와 일치

---

51) Alain Pons, op. cit., p.9.

52) Idem.

53) Robert Damton, op. cit., p.36.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대노하였으나, 전체 작업을 망치지 않기 위해 냉정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sup>54)</sup> 한편 1763년 백과전서의 친구이자 보호자였던 말제르브가 도서행정 총감의 직위에서 해임되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의 후임자인 사르틴(Sartine)도 백과전서에 우호적이었다.

1765년에 도판 제4권이 출간되고 텍스트의 마지막 10권도 인쇄되었다. 디드로는 “위대하고 저주받은 작품이 끝났다!”라고 외쳤다고 한다.<sup>55)</sup> 디드로가 제8권의 서문으로 쓰일 「일러두기 *avertissement*」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1765년 12월 『백과전서』의 마지막 10권이 출판되었다. 하지만 이 텍스트 10권은 암묵적인 허가로 출판되었기 때문에 파리와 베르사유에서의 배포는 금지되었다. 이 금지를 어긴 죄로 르 브르통이 며칠 동안 바스티유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였다.<sup>56)</sup> 한편 1767년부터 1769년까지 도판 제5권, 제6권, 제7권이 각각 출판되었고 1771년에는 제8권과 제9권이 출판되었다. 그리고 1772년에 도판 제10권과 제11권이 출판되었다. 마침내 텍스트 17권과 도판 11권의 『백과전서』가 완간되었다. 디드로가 편집장을 맡은 지 26년만이었다. 『백과전서』의 편찬 작업은 예수회 등 반대파 진영의 공격과 탄압에도 굴하지 않은 디드로의 끈기와 개혁적 인사들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한편 로베르 단톤(2013 : 63)에 의하면 『백과전서』는 총 4,225질이 간행되었는데, 이중 2천질은 프랑스에서 배포되었고 나머지는 외국에서 판매되었다. 판쿱(Panckouke)은 1770년에 『백과전서』 재판(*réimpression*)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였고, 1776-1777년에 르네 로비네(Jean Baptiste René Robinet)와 함께 4권의 텍스트와 1권의 도판으로 된 『부록

---

54) Jacques Proust, op. cit., p.74.

55) Alain Pons, op. cit., p.11.

56) Ibid., p.11.

Supplément』을 출판하였다. 그리고 1780년에는 피에르 무송(Pierre Mouchon)이 2권의 『색인Table analytique』을 출판하였다.

## 2. 사전학적 특징

### 1) 간행 목적과 지식 분류 체계

2절 판형 17권의 텍스트와 11권의 도판으로 이루어진 일명 ‘파리’ 초판은 약 7만 2천여 개의 항목을 기술하고 있다. 『백과전서』의 간행 목적은 “지구상에 흩어져 있는 지식을 모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지식의 일반 체계를 제시하고, 이를 우리 다음에 올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sup>57)</sup>이었다. 과거부터 흩어져 존재하는 지식을 한데 모아 동시대인들에게 제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간지식의 분야들을 하나의 통일된 체계 속에 포괄하는 것이 필요하다. 체계 없이 흩어져 있는 지식은 후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수학자 겸 물리학자였던 달랑베르는 프란시스 베이컨의 분류를 토대로 『백과전서』의 지식 분류 체계를 세웠다.

달랑베르는 인간의 지적 능력을 기억, 이성, 상상력의 세 부분으로 나누고, 모든 학문을 이 각각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누어 구분했다. 기억의 영역에는 역사가, 이성의 영역에는 철학이, 상상력의 영역에는 예술 분야가 속했다. 각 분야는 하위분야로 다시 나뉘고, 하위분야는 또 그 아래의 분야로 세분되었다. 역사 분야는 종교사와 시민사, 자연사, 고대사와 현대사를 아울렀다. 그리고 자연사에는 기술과 공예가 속했다. 철학

---

57) “[...] le but d'une Encyclopédie est de rassembler les connoissances éparées sur la surface de la terre ; d'en exposer le système général aux hommes avec qui nous vivons, & de le transmettre aux hommes qui viendront après nous; [...]”(『백과전서』 제5권 「백과사전 Encyclopédie」 항목, p.635.)

분야에는 과학이라 부르는 지식의 대부분이 속하였다. 신학도 이성의 항목에 속했다. 이는 인간 이성을 신뢰하고 종교에 대한 비판적이었던 계몽철학자들의 의도를 잘 담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술 분야에는 시학, 음악, 미술, 조각, 건축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분류 방식은 계통에 따라 지식을 조사하고 고찰하게 해주며 다양한 지식이 서로 굳게 결속되어 있고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쉽게 보여준다.<sup>58)</sup>

## 2) 항목 구조

『백과전서』는 제1권 A 항목으로 시작하여 제17권의 조쿠르가 작성한 ZZUÉNÉ ou ZZEUENE 항목으로 끝난다.<sup>59)</sup> 기술하는 내용의 길이에 상관없이 각 항목들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        |        |
|--------|--------|
| · 표제어  | · 문법정보 |
| · 분야정보 | · 내용   |
| · 참조표시 | · 저자   |

표제어들은 대문자로 표기되어 있고, 표제어 뒤에는 품사 정보가 따른다. 품사 정보 뒤에는 괄호 안에 이탤릭체로 이 표제어가 속하는 분야가 표시되어 있다. 고유명사에는 품사정보가 없기 때문에 표제어 바로 뒤에 분야 정보가 따른다. 항목의 제일 뒤에는 항목을 작성한 저자명이 괄호 속에 표시되어 있다. 텍스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보자.

텍스트 마지막 페이지에 10개의 항목이 처리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58) Madeleine Pinault, op. cit., p.63.

59) 마지막 항목 다음에는 751쪽에서 800쪽에 걸쳐 134개의 누락된 항목들(Articles omis)을 다루고 있다.

terie, & qui habitoient un pays d'accès difficile. (D. J.)

**ZYGLIANA**, (*Géog. anc.*) contrée de l'Asie mineure, dans la Bithynie, selon Ptolomée, *l. V. c. 1.* (D. J.)

**ZYGOMA**, f. m. (*Anatomie.*) c'est l'os de la tête communément appelé os jugal. Voyez OS. Ce mot vient de *ζυγισμα*, *jungo*. Ainsi *zygoma*, à proprement parler, est la jointure de deux os.

Le *zygoma* n'est point un seul os, mais l'union & l'assemblage de deux apophyses ou éminences d'os, l'une de l'os temporal, l'autre de l'os de la pommette. Voyez Planches de l'Anatomie, & leur explic. Ces deux éminences ou apophyses sont jointes par une future appelée *zygomatique*. Voyez ZYGOMATIQUE.

**ZYGOMATIQUE**, f. m. (*Anatomie.*) se dit de l'arcade qui s'observe entre l'angle externe de l'orbite & le trou auditif externe, & qu'on appelle aussi *zygoma*. Voyez ORBITE AUDITIF & ZYGOMA.

On donne aussi ce nom aux deux apophyses qui la forment, dont l'une, qui est produite par l'os temporal, a sa base vers le trou auditif, & se portant horizontalement, vient s'engrener avec une autre bien plus courte produite par l'os de la pommette. Voyez TEMPORAL, POMMETTE, &c.

Le grand *zygomatique* est un muscle situé obliquement sur les joues entre la commissure des lèvres & l'os de la pommette; il vient de l'apophyse *zygomatique*, & en passant obliquement il va s'insérer à l'angle des lèvres.

Le petit *zygomatique* vient de la partie moyenne de l'os de la pommette, & va en s'unissant avec quelques fibres de l'orbiculaire des paupières, se terminer à la levre supérieure, environ au-dessus des dents canines.

**ZYGOPOLIS**, (*Géog. anc.*) ville de la Colchide; Strabon, *l. XII. p. 348.* qui en parle, semble la placer près de Trapezunte; & Etienne le géographe croit qu'elle appartenait au peuple *Zygi*. (D. J.)

**ZYGOSTATE**, f. m. (*Littrés.*) *ζυγοστάτης*, magistrat qui chez les Grecs étoit établi pour veiller aux poids d'usage dans le commerce, & empêcher qu'on ne se servit ni de faux poids ni de fausses balances. Ce mot vient de *ζυγος*, *balance*; & le droit qu'on payoit pour la pesée des marchandises, se nommoit en conséquence *zygostate*. (D. J.)

**ZYGRIS**, (*Géog. anc.*) ville du nôme de Lybie sur la côte. Ptolomée, *liv. IV. c. 9.* ne lui donne que

le titre de *villa*. Elle est appelée *Zygrana* dans le concile de Chalcedoine. Le nom moderne est *Salona*, selon Cassald. (D. J.)

**ZYMOLOGIE**, f. f. (*Chimie.*) c'est-à-dire discours, science, traité sur la fermentation; c'est un terme moderne, ainsi que la belle doctrine de cette partie curieuse de la Chimie exposée dans plusieurs articles de ce Dictionnaire. Voyez FERMENTATION, EFFERVESCENCE, MIXTION, PUTRÉFACTION, &c. (D. J.)

**ZYMOSETRE**, f. m. (*Physiq. générale.*) c'est un instrument proposé par Swammerdam, dans son traité latin de la respiration, pour mesurer le degré de la fermentation que cause le mélange des matières qui en sont susceptibles, & connoître quelle est la chaleur que ces matières acquièrent en fermentant, comme aussi le degré de chaleur des animaux. Boerhaave a profité de cette belle idée de Swammerdam, en engageant Fahrenheit à faire des thermomètres de mercure, qui mesurent tous les degrés de froid & de chaud, depuis vingt degrés au-dessous de la glace, jusqu'à la chaleur des huiles bouillantes. (D. J.)

**ZYRAS**, (*Géog. anc.*) fleuve de Thrace. Pline, *liv. IV. c. 27.* dit que ce fleuve mouilloit la ville de Dionysopolis. Le pere Hardouin, au lieu de *Zyras* écrit *Ziras*. (D. J.)

## Z Z

**ZZUËNÉ** ou **ZZEUËNE**, (*Géog. anc.*) ville située sur la rive orientale du Nil, dans la haute Egypte, au voisinage de l'Éthiopie. Voyez SYËNÉ.

C'est ici le dernier mot géographique de cet Ouvrage, & en même tems sans doute celui qui fera la clôture de l'Encyclopédie.

« Pour étendre l'empire des Sciences & des Arts, » dit Bacon, il seroit à souhaiter qu'il y eût une correspondance entre d'habiles gens de chaque classe; » & leur assemblage jetteroit un jour lumineux sur le globe des Sciences & des Arts. O l'admirable conspiration! Un tems viendra, que des philosophes animés d'un si beau projet, oseront prendre cet essor! Alors il s'élevera de la basse région des sophistes & des jaloux, un esain nébuleux, qui voyant ces aigles planer dans les airs, & ne pouvant ni suivre ni arrêter leur vol rapide, s'efforcera par de vains croislemens, de décrier leur entreprise & leur triomphe. » (Le Chevalier DE JAU-COURT.)

대문자로 표기되어 있는데 그중 6개는 고딕체로 나머지 4개는 이탤릭체로 되어 있다. 이탤릭체로 소개된 표제어들은 모두 '고대 지리 Géog. anc.' 와 관련된 항목들이다. 그런데 마지막 항목 ZZUËNÉ도 고대지리에 속하는 용어인데 이것은 고딕체로 표기되어 있다. 표제어 소개 방식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표제어 뒤에는 일반명사의 경우 문법 정보와 분야 정보가 따르고, 고유명사의 경우에는 바로 분야 정보가 나온다. 항목 제일 끝에는 그 작성자가 괄호 속에 표시되어 있다. 참조표시(Voyez)는 주로 항목 뒤 저자명 앞에 위치하나 ZYGOMA, ZYGOMATIQUE의 경우처럼 본문 안에 오기도 한다.

표제어들은 알파벳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알파벳순 배열은 어떤 항목도 우선하지 않고 모든 항목들이 동등하게 처리된다.<sup>60)</sup> 알파벳순 배열은 항목들을 동등하게 처리하면서 참조를 쉽고 편리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달랑베르는 「머리말」에서 알파벳순 배열을 선택한 이유를 독자가 찾고자 하는 낱말의 의미정보를 편하고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sup>61)</sup> 또한 그는 「사전」 항목에서도, 사전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해 참조하기 위해 만들어지며, 찾고자 하는 것을 다른 것(책)들보다 더 편하게 발견하는 것이 사전의 중요한 유용성으로 간주한다.<sup>62)</sup> 하지만 알파벳순 배열은 항목들 간의 연관관계를 보여주지 못하고 그 결과 어떤 대상에 대해 깊이 있게 배우는 것을 방해하는 단점이 있다. 달랑베르는 「사전」 항목에서 백과사전은 참조의 편리함 이외에 항목들 간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백과사전’이라는 낱말의 뜻 자체가 “지식의 연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sup>63)</sup>

### 3) 참조기호

『백과전서』는 이러한 알파벳순 배열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백과사전

60) Madeleine Pinault, op. cit., p.64.

61) 『백과전서』, 제1권 「머리말」, p.xxxvi.

62) 『백과전서』, 제4권 「사전Dictionnaire」 항목, p.969.

63) “Ce mot [Encyclopédie] signifie *enchaînement de conainssances*, [...]”(『백과전서』 제5권 「백과사전Encyclopédie」 항목, p.635.)

으로서 기능하기 위하여 한 항목 안에서 다른 항목을 지시하는 참조기호(renvoi)라는 것을 이용하였다. 참조기호를 통하여 항목들은 같은 분야 또는 다른 분야의 관련 항목들과 연결되어 있다. 참조기호를 이용하여 항목들이 서로 연결되지만 한 분야를 다루는 전문 책보다는 대상들의 연관관계가 덜 드러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전문 분야의 책은 다루는 분야의 대상들에 한정되어 있어 다른 분야의 대상들은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과의 연관관계는 보여주지 못한다. 이에 반해 『백과전서』는 같은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항목들과도 연관관계가 드러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백과전서』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참조기호, 즉 ‘낱말 참조기호’와 ‘사물 참조기호’가 있다. 낱말 참조기호는 다른 항목에 있는 정의를 참조하게 함으로써 용어의 정의를 반복하는 것을 피하게 해준다.

학문 하나하나, 기술 하나하나에는 자기 언어가 있다. 어떤 기술 용어를 사용할 때마다 명확성을 도모하기 위해 그 용어의 정의를 반복해야 했다면 우리는 어느 단계에 와 있는 것일까? 얼마나 불필요한 반복인가? 옆길로 새고, 흐름이 끊어지고, 길게 늘이면서 얼마나 모호해질까?<sup>64)</sup>(이충훈 역)

낱말 참조기호는 정의의 반복을 피함으로써 항목 기술을 원활하게 하고 내용이 모호해지는 것을 예방해준다. 사물 참조기호의 기능은 디드로가 작성한 「백과사전」 항목에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

64) “Chaque science, chaque art a sa langue. Où en seroit-on, si toutes les fois qu’on employe un terme d’art, il falloit en faveur de la clarté, en répéter la définition ? Combien de redites ? & peut-on douter que tant de digressions & de parenthèses, tant de longueurs ne rendissent obscur.”(『백과전서』 제5권 「백과사전Encyclopédie」 항목, p.642.)

사물의 참조기호는 대상을 밝혀주고, 그 대상과 즉각적인 관계가 있는 것과는 인접한 관계를, 고립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것과는 소원한 관계를 지시하고, 공통개념과 유사원리들을 떠올리게 하고, 결론을 확고하게 하고, 가치와 몸통을 연결하고, 전체에 진리를 입증하고 설득하는 데 대단히 유용한 단일성을 확보해 준다.<sup>65)</sup>(이충훈 역)

참조기호는 “학문들에서는 어떤 관계들을, 자연의 실체에서는 유추적 특성들을, 기술에서는 유사한 여러 조작들을 접근시키며 새로운 사변적인 진리를 가능하게 하고, 알려진 기술을 완전하게 하고,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고, 잊힌 옛날 기술을 복원할 수 있게”<sup>66)</sup> 해준다. 참조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고 새로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보통사람에게는 힘든 일이다. 디드로는 참조기호를 이 정도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천재라 보았다.

이 참조기호는 천재가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러한 참조기호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가. 천재는 이처럼 결합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다.<sup>67)</sup>(이충훈 역)

보통사람들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 해도 저자들이 참조기호를 통하여

---

65) “Les renvois de choses éclaircissent l’objet, indiquent ses liaisons prochaines avec ceux qui le touchent immédiatement, & ses liaisons éloignées avec d’autres qu’on en croiroit isolés ; rappellent les notions communes & les principes analogues ; fortifient les conséquences ; entrelacent la branche au tronc, & donnent au tout cette unité si favorable à l’établissement de la vérité & à la persuasion.”(『백과전서』 제5권 「백과사전 Encyclopédie」 항목, p.642.)

66) 『백과전서』, 제5권 「백과사전 Encyclopédie」, p.642; 드니 디드로, op. cit., p.101.

67) “Ces renvois sont l’ouvrage de l’homme de génie. Heureux celui qui est en état de les apercevoir. Il a cet esprit de combinaison [...]”(『백과전서』 제5권 「백과사전 Encyclopédie」 항목, p.642.)

“공개적으로 공격할 수 없는 의견을 은밀하게 공박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을 것이다. 디드로는 이러한 참조기호를 특별히 ‘풍자나 경구의 참조기호envois satiriques ou épigrammatiques’라 지칭하였다. 『Cordeliers』(성 프란체스코 수도회의 수도사) 항목에서 『Capuchon』(카뤼송: 두건 달린 망토) 항목을 지시한 것이 그 한 예다. 앞의 항목에서는 거창하게 찬사를 늘어놓고 있지만, 뒤의 항목에서는 수도사들이 카뤼송을 두고 두 파로 나누어 ‘큰 전쟁grande guerre’을 벌였던 일화가 소개되어 있다. 한쪽에서는 카뤼송이 좁아야 한다고, 다른 한쪽에서는 넓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논쟁이 한 세기나 지속되었고 교황의 칙서에 의해서 끝났다는 것이다. 이처럼 수도사들은 아무 일도 아닌 것에 시끄럽게 구는 사람으로 우습게 묘사되어 있다. 이처럼 『성 프란체스코 수도회의 수도사』 항목에서는 하지 못했던 말을 『카뤼송』 항목에서 기술하고 이를 참조하게 한 것은 앞 항목에서의 “그 거창한 찬사가 실은 빈정거림에 지나지 않았는지, 그 항목을 주의 깊게 읽고 모든 용어를 정확하게 따져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게 만들 수 있다.”<sup>68)</sup>

오늘날 하이퍼텍스트의 기능을 하는 참조지시는 검열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이용되었다. 예를 들면, 위의 예처럼 성 프란체스코 수도회의 수도사에 대한 비판이 『Cordeliers』 항목 대신 『Capuchon』 항목에 제시되는 식이다. 하지만 피노는 이 점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백과전서』가 권력으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았던 제1권에서부터 참조지시가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오히려 참조지시가 항목들 사이의 연관관계를 보여주려는 의도의 결과물로 본다.<sup>69)</sup> 참조지시들은 같은 주제를 여러 저자들이 다룰 수 있도록 하고 그럼으

68) 『백과전서』, 제5권 『백과사전Encyclopédie』 항목, p.643; 드니 디드로, op. cit., p.104.

69) Madeleine Pinault, op. cit., p.64.

로써 다양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프루스트(Proust, 1965 : 91)도 피노에 앞서 참조지시의 기능을 같은 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는 수단으로 인식했다. 예를 들어 사회의 원리(fondements de la société) 문제가 디드로의 「정치권력Autorité politique」, 부셰 다르지(Boucher d'Argis)의 「자연법Droit naturel」, 루소의 「정치경제 Economie politique」 항목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들의 의견이 서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같은 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은 각자 고유의 음색을 간직하면서 전체적인 조화를 해치지 않은 일종의 폴리포니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풍도 참조지시가 단순히 검열을 야유하는 짓궂은 방식이 아니라, 디드로가 『백과전서』에 부여했던 “공동의 방식으로 생각을 변화시킨다”라는 야망을 실현시키는 장치로 인식하고 있다.<sup>70)</sup>

### 3. 『백과전서』 간행의 문화사적 의의

『백과전서』의 출간 사업은 많은 자금과 인력이 필요한 18세기 대형 출판 프로젝트였다. 르 브르통과 동업자들은 자금 문제를 선금 구독료 방식으로 해결했는데, 이 방식으로 책을 판매하는 것은 출판업자들에게 여러 이점을 가져다주었다. 사전 구독 신청은 시장에 대한 예비 조사 역할을 해 판매부수를 예측하게 해주었고 그에 맞추어 출판을 계획함으로써 출판 비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 1750년 디드로가 『취지서』를 배포했을 때, 약 천명이 사전 구독을 신청하였고, 제1권이 출판되고는 구매 신청자가 천 사백 명으로 늘어났고, 1752년 『백과전서』의 1, 2권의 발행을 금지한 판결 이후에는 예약자가 3배나 증가하였다.<sup>71)</sup> 앞에 언급한

70) Alain Pons, op. cit., p.44.

71) Robert Damton, op. cit., p.35.

것처럼 『백과전서』 파리 초판의 총 발행부수는 4,255부이다. 이것은 이 작품의 출판이 철저히 사전 구독 신청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개인의 지적 능력이나 동물적 능력에서의 한계를 잘 알고 있던 디드로는 『백과전서』 집필에 200명이 넘는 인력을 동원하였다. 그는 “백과사전의 작업은 흩어져 있고 각자 자기 영역에 전념하고 있고 인류의 보편 이해와 상호 호의의 감정으로 하나가 된 문인과 기수인의 협회만이 해낼 수 있을 것”<sup>72)</sup>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백과사전의 출판 때 각 항목의 집필은 각 항목의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전통이 수립되었다.<sup>73)</sup> 『백과전서』의 기고자들은 당시까지의 모든 지식을 집대성하였고, “고상한” 지식뿐만 아니라 칼 제조업, 주물제조업, 피혁제조업 등과 같은 “저급한” 인간 경험의 전문지식이 동등하게 기술되었다. 또한 각 항목에는 그 항목을 작성한 집필자를 밝혔다. 일종의 항목 저자 실명제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독자들에게는 사전에 대한 신뢰를, 저자들에게는 집필의 책임감을 함께 주었다. 실제로 달랑베르는 자신이 작성한 「제네바」 항목이 문제가 되어 책임을 지고 편집장의 자리에서 물러났다.

『백과전서』는 18세기 지식의 총결산이다. 이 사전은 수학, 천문학, 물리학, 지질학, 박물학, 의학, 역사, 법학, 경제학, 신학, 철학, 문법(언어학)을 비롯하여 그때까지 이루어진 인간의 발전상을 집대성하고 있다. 『백과전서』는 이전 세기에 발견한 모든 것들을 하나로 모으고자 하였다.<sup>74)</sup> 그리하여 “가장 현명한 인간이라도 이곳에서 그가 모르는 새로운 사상과 사실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sup>75)</sup>라고 디드로는 확신하였다.

72) 『백과전서』 제5권 「백과사전Encyclopédie」 항목, p.636; 드니 디드로, op. cit., p.23.

73) Alain Pons, op. cit., p.24.

74) 『백과전서』 제8권 「일러두기Avertissement」, p.II.

75) Idem.

또한 『백과전서』는 프랑스 계몽사상의 결실이기도 하다. 편집책임자인 디드로와 달랑베르를 비롯하여 루소, 볼테르, 몽테스키외 등 프랑스의 대표적 계몽사상가들은 전통과 권위가 아닌 인간과 이성 중심의 가치관을 인류 앞에 제시하였다.

17세기 프랑스인에게 인간 이성과 지성은 중요하지 않았다. [...] ‘일시적’인 이 지상의 삶에서 영생만을 생각하였다. 그 결과 지성의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았다. 유일한 요점은 종교적 신앙과 도덕이 고양되는 것이었다. 『백과전서』의 목표는 인류의 운명이란 하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지성에 의해 이 세상에서, 또 이 세상을 위해 진보하는 것에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데 있다.<sup>76)</sup>(인용자 역)

이들은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의문을 제기했고 편견과 관습, 신념, 권위를 비판하면서 종교적 관용과 사상의 자유, 과학과 기술의 가치 등을 논했다. 하지만 이들이 작성한 항목 서술 자체는 과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디드로의 몇몇 항목을 제외하고), 그들이 유보한 주제조차 불손한 암시를 허용하지 않는 것들이었다. 만일 우리가 정치나 종교에 관한

---

76) “Pour un Français du siècle précédent, la raison humaine ou l’intelligence tout entière n’étaient rien. Elles ne peuvent avoir qu’une utilité pratique pour la vie de cette terre; mais qu’était la vie de cette terre sinon un “passage” où il fallait ne songer qu’à la vie éternelle. Peu importait par conséquent qu’il y eût, d’une génération à l’autre, plus ou moins d’intelligence; le seul point qui comptait était qu’il y eût plus de fois et de moral chrétiennes ; [...] Le dessein de l’Encyclopédie proclame très haut que le destin de l’humanité est non pas de se tourner vers le ciel, mais de progresser, sur cette terre et pour cette terre, grâce à l’intelligence et à la raison.”(Daniel Momet, *Les origines intellectuelles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1715-1789*, Éditions Tallandier, 2010, pp.76~77.)

주제를 다룬 항목들을 살펴보아도 [...], 우리는 거기서 중립을 지키고, 신중하며, 존경심까지 보여주는 것 이외에 아무 것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sup>77)</sup>(인용자 역)

아마도 이것은 권력의 비위를 건드려 출판과 판매에 지장이 있을까 두려웠던 르 브르통이 위험성이 있는 항목의 텍스트 내용 일부를 제거하고 출판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과전서』는 단순한 백과사전은 아니었다. 계몽주의 시대의 이성적 사고와 사회 비판주의를 대변하는 선언문이라 할 수 있다. 『백과전서』는 과학 발명품과 실용기술에 대한 최신의 지식을 배포함으로써, 모든 교육받은 독자로 하여금 새로운 사상과 기술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또한 편견과 구습을 비판하고 불합리와 모순에 찬 사회 정치 제도를 이성의 눈으로 고찰함으로써 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을 도모하고 왕정의 독점 체제에 종말을 고하고자 했다.<sup>78)</sup> 저자들이 처음부터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 해도 결과적으로 『백과전서』는 프랑스 대혁명의 사상적 기반이 된다.

#### IV. 결론

우리는 『아카데미 프랑세즈 사전』의 제2판부터 제5판까지의 개정판 출간 과정과 각 판의 특징, 『백과전서』의 출간 배경과 과정, 사전학적

---

77) “[...] les sujets mêmes qu'ils s'étaient réservés (exceptions faites pour quelques articles de Diderot) étaient de ceux qui ne permettaient même pas de allusions impertinentes. Si l'on parcourt les articles qui exposent les sujets de politique ou de religion [...], on n'y trouve rien que de neutre, de prudent ou même de respectueux.”(Idem.)

78) Martyn Lyons, *Books : A living history*, 서지원 역, 『책, 그 살아있는 역사』, 21세기북스, 2011, 107쪽.

특징 및 문화사적 의의를 통하여 18세기 프랑스의 사전 출판의 역사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18세기는 아카데미 프랑세즈가 가장 활발하게 사전을 편찬한 시기라 할 수 있다. 현재 제9판이 출간 중에 있는 『아카데미 프랑세즈 사전』은 이 한 세기 동안만 4개의 판이 출판되었다. 초판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작된 제2판은, 전판을 보완하면서 새로운 판을 만드는, 아카데미의 사전 편찬 전통의 출발점이 되었다. 아카데미는 기본적인 편집 원칙은 준수하면서도 꾸준히 새로운 시도를 하는 특징을 지닌다. 제2판은 표제어의 배열 방식을 바꾸었다. 이것만으로도 이 판은 초판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전”으로 인식될 정도였다. 제3판에서는 새로운 철자법이 도입되었다. 제4판에서는 모음 I와 자음 J, 모음 U와 자음 J가 분리되었고, 전문 용어들이 많이 등재되었다. 하지만 제5판에서는 이전 판에서 원칙을 어기고 등재되었던 많은 전문 용어들이 삭제되었다. 또한 혁명 정부에 의해 출간된 제5판은 대혁명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다. 혁명 이후 새롭게 출현한 낱말들을 부록에 추가한 것이다. 신조어를 곧장 등재하는 것은 아카데미의 기본적인 편집 방향과는 맞지 않지만, 아카데미도 시대 상황을 비켜갈 수는 없었다. 「머리말」도 아카데미 회원과는 관계가 없는 가라에 의해 작성되었다. 이런 이유로 한때 이 판이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공식 사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수난을 겪기도 하였다. 하지만 원고의 대부분이 대혁명 전 아카데미 회원들에 의해 작성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식 사전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가라가 「머리말」에서 밝힌 것처럼 “프랑스어의 용법과 규칙을 신뢰하고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사전”이라는 명예를 안게 된다.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사전이 언어사전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지만, 프랑스에서 18세기는 새로운 유형의 사전, 즉 『백과전서』의 출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17세기가 세 유형의 언어사전, 즉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규범적 언어사전, 리슐레의 기술 사전, 퀴르티에르의 백과사전적 언어사전의 출현으로 언어사전의 모델이 출현하였다면, 18세기는 백과사전의 모델이 출현한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사전의 출판은 당시의 사회 문화적 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때에 백과사전이 출간될 수 있었던 것은 출판 산업의 성장과 생활여건의 개선, 과학과 학문의 발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제작기간이 20년이 넘는 대사전의 출판은 흩어져 있는 지식을 한데 모아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을 사명으로 여긴 디드로의 끈기와 열정이 있기에 가능했다. 물론 이런 대 역사가 한 사람만의 작업일 수는 없다. 직업과 신분은 달라도 “인류에 관한 보편적인 관심”을 공유한 200여 명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백과전서』는 약 7만 2천개의 항목을 기술하고 있고, 표제어들은 알파벳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이 배열 방식은 찾고자 하는 항목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해주지만 항목들 간의 연관관계를 보여주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백과전서』는 참조기호라는 것을 이용하여 알파벳순 배열의 단점을 극복하고 항목들 간의 연관관계를 보여준다. 참조기호는 같은 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려주는 폴리포니를 형성하고 그럼으로써 디드로가 『백과전서』에서 실현하고자 했던 공동의 방식으로 생각을 변화시키는 장치로 작동한다. 이 시대에 벌써 미래의 하이퍼텍스트의 기능이 실현된 것이다.

한편 『백과전서』는 18세기 지식의 총결산이자 프랑스 계몽사상의 결실이다. 집필에 참여한 계몽사상가들은 편견과 구습을 비판하고 종교적 관용과 사상의 자유를 옹호하였으며 불합리와 모순에 찬 사회 정치 체도를 이성의 눈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결국 이들이 의도하지는 않았지

만 『백과전서』는 프랑스 대혁명의 사상적 기반이 된다. 본고에서 『백과전서』가 후세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지면상, 아니 그보다는 그 주제의 방대함 때문에 다루지 못했다. 이 주제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 |참고문헌

- 디드로 드니, 이충훈 역, 『백과사전』, 도서출판b, 2014.
- 부길만, 『출판기획물의 세계사』, 커뮤니케이션북, 2014.
- ACADEMIE FRANCAISE, *Dictionnaire de l'Académie française*, version CD-ROM PC, Redon, 2002~2003.
- BADDELEY Susan et BIEDERMANN-PASQUES, Liselotte, “Troisième édition 1740 Préface : Introduction et Notes”, dans Bernard Quemada, 1997.
- BENHAMOU Simone et al., “Première édition 1694 Épitre, Préface, Privilège, Pièces annexes : Introduction et Notes”, dans Bernard Quemada, 1997.
- BIERBACH Mechtild, “Le dictionnaire d'Antoine Furetière face au Dictionnaire de l'Académie 1694, lexicographe et histoire des idées”, dans Bernard Quemada & Jean Pruvost, 1988.
- BLASSELLE Bruno, *Histoire du livre*, Gallimard, 2008.
- CAPUT Jean-Pol, *L'Académie française*, <Que sais-je ?>, Presse Universitaire de France, 1986.
- DARNTON Robert, *L'aventure de l'Encyclopédie 1775-1800*, Points, 2013.
- DESSAINT Michel, “Quatrième édition 1762 Épitre, Préface, Privilège : Introduction et Notes”, dans Bernard Quemada, 1997.
- DIDEROT Denis, *Prospectus*, 1750. (출처: wikisource.org)
- DIDEROT Denis, *L'Encyclopédie 50 articles fondamentaux*, Mille et une nuits, 2013.
- DIDEROT Denis et al., *Encyclopédie ou dictionnaire raisonné des sciences*,

- des arts et des métiers*, Chez Braison et al., Paris, 1751~1772.
- LYONS Martyn, Books : *A living history*, 서지원 역, 『책, 그 살아있는 역사』, 21세기북스, 2011.
- MATORE George, *Histoire des dictionnaires français*, Larousse, 1968.
- MORIN Robert, “Diderot, l’*Encyclopédie* et le *Dictionnaire de Trévoux*”, *Recherche sur Diderot et sur l’Encyclopédie*, 1989, 7.
- MORNET Daniel, *Les origines intellectuelles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1715-1789*, Éditions Tallandier, 2010(초판: 1933, Armand Colin).
- MORTIER Roland, “Diderot et l’*Encyclopédie*”, *Recherche sur Diderot et sur l’Encyclopédie*, 1995, 18-19, pp.123~131.
- PINAULT Madeleine, *L’Encyclopédie*, <Que sais-je ?>, Presse Universitaire de France, 1993.
- PONS Alain, *Encyclopédie I ou dictionnaire raisonné des sciences, des arts et des métiers(articles choisis)*, GF Flammarion, 1986a.
- PONS Alain, *Encyclopédie II ou dictionnaire raisonné des sciences, des arts et des métiers*, GF Flammarion, 1986b.
- PROUST Jacques, *L’Encyclopédie*, Librairie Armand Colin, 1965.
- PRUVOST Jean, “Septième édition 1878 Préface : Introduction et Notes”, dans Bernard Quemada, 1997.
- PRUVOST Jean, *Les dictionnaires de langue française*, <Que sais-je ?>, Presse Universitaire de France, 2002.
- QUEMADA Bernard, *Les préfaces du Dictionnaire de l’Académie française 1964-1992*, Paris, H. Champion, 1997.
- QUEMADA Bernard & PRUVOST Jean. (éds), *Le dictionnaire de l’Académie française et la lexicographie institutionnelle européenne*,

Paris, H. Champion, 1998.

ROUCHER Eugénia, “Deuxième édition 1718 Épitre, Préface, Privilège :  
Introduction et Notes”, dans Bernard Quemada, 1997.

TASKER Liliane, “Cinquième édition 1798 Discours préliminaire et Pièces  
annexes : Introduction et Notes”, dans Bernard Quemada, 1997.

WALTER Henriette, “La prononciation dans le Dictionnaire de l’Académie”,  
dans Bernard Quemada et Jean Pruvost, 1998.

<http://gallica.bnf.fr/ark:/12148/bpt6k50533b>

<http://www.chass.utoronto.ca/~wulfric/academie/>

[https://fr.wikisource.org/wiki/Page:Diderot\\_-\\_Encyclopedie\\_1ere\\_edition](https://fr.wikisource.org/wiki/Page:Diderot_-_Encyclopedie_1ere_edition)

[https://fr.wikisource.org/wiki/Prospectus\\_\(Diderot\)](https://fr.wikisource.org/wiki/Prospectus_(Diderot))

<Abstract>

## A Study on French Dictionaries of the 18th Century

- Based on the *Dictionnaire de l'Académie française* and the *Encyclopédie*

Ha, Young-dong

The members of the Académie Française were aware of shortcomings of their Dictionary when the first edition of the *Dictionnaire de l'Académie française*, compiled by those intellectuals who could be called the best experts on the language, was published in 1694. This dictionary, the product of collective intelligence, lost in competition with the Richelet's and the Furetière's dictionaries. They had no choice but to embark on a modification of the first edition, and publishing a new edition by modifying the previous one became the main task of the Académie. The Académie Française published four editions, from the second one to the fifth during the 18th century. This article examines the lexicographic characteristics of each edition by focusing on innovations made in each of them.

The 18th century in the history of French lexicography started with the publication of a new edition of the Furetière's dictionary and concluded with the 5th edition of the *Dictionnaire de l'Académie*

*française*. In other words, it started with an encyclopedic language dictionary and finished with the language dictionary, and a new type of dictionary emerged in the middle. It was *Encyclopédie, ou Dictionnaire raisonné des sciences, des arts et des métiers*.

The *Encyclopédie*, which is a monumental work of the French Enlightenment, aimed at collecting a variety of human knowledge scattered across the Earth, covering in a unified system and bequeathing it to the later generation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rocess of publishing the *Encyclopédie* which was characterized by relentless repression of opposing views during more than 25 years, its lexicographic characteristics and its cultural historical significance.

key words : Académie française, French dictionary, Encyclopedia, Diderot, d'Alembert

이 논문은 2016년 9월 13일 투고되어 2016년 10월 6일 1차 심사 완료하였으며,  
2016년 10월 21일 2차 심사 완료하여 2016년 10월 21일에 게재 확정되었음.